“ 겸손의 길 ”

■ **이종윤 원로목사**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과 순종의 덕성으로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순종은 어려운 일이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순종은 굴종이나 위선이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됨은 험난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길이다.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닦으신 주님의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그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한 이들이 질투하며 다투었다.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전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어린아이같이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겸손은 섬김에 우선된다. 어린아이나 노예처럼 낮아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다. 우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네 개의 짐을 던져버려야 남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다.

첫째, 교만의 짐(the burden of pride)을 던져 버려라. 겸손은 교만의 반대어다. 우리를 공격해 온 사람에게 우리의 교만한 반응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가? 자신을 작은 왕으로 여기고 자신을 우상처럼 왕처럼 처신하고 대해주기를 바라지 않았던가. 자기를 비방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한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은 자기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교만의 탈을 벗어버릴 때 가능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 사람 앞에 큰 자로 설 수가 있었다.

둘째, 위선의 짐(the burden of pretense)을 벗어버려라.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있는 것을 숨기려 하는 위선의 짐을 버려야 겸손해진다. 사업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처럼 우쭐거리며 행세하려거나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다. 지식은 짧고 경험도 미천한 이가 더 많은 교육과 경륜을 쌓은 이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 한다면 꼴불견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인이 못되었으면서 문화인인체 외모를 꾸미고 행세를 하려는 위선자는 겸손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진실이 없고 빈수레처럼 잡소리만 낸다. 자신이 실제로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장을 한다. 자신이 정보에 어둡고, 신앙생활 철학도 없는 미숙한 사람, 세련되지 못한 사람 취급받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문제는 자신은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우리는 부패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안 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될 일도 한다고 핑계를 댄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참회하고 부복해야 한다. 우리의 기본 죄는 다른 사람 앞에 죄를 감추고 목을 곧게 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올 때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식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될 것이다.

셋째, 인위적인 짐(the burden of artificiality)을 벗어 던지라. 외식과 비슷하지만 실은 다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강한 체하는 진실이 결여된 이에겐 겸손이 없다. 인위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한다. 십자가는 사실이다.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속이는 것과 악은 소멸되어야 한다. 진리 앞에 겸손하고 사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

넷째, 자기 성취를 위한 투쟁의 짐(the burden of self-struggle)을 벗어버려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인정받기 위해 자신과 투쟁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만에서 흘러나온 자기 성취를 위한 노력과는 다르다. 자기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 즉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야 겸손해진다. 교만, 위선, 인위적 꾸밈, 자기 성취욕에서 벗어나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시작할 때 따르기 어려운 겸손의 길을 예수님처럼 걷게 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2012년 11월 17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여름의 향기가 느껴지는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교회의 모든 부서 모임과 활동도 정상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출입구도 모두 개방하여 2층 본당 입구와 한티공원쪽 후문을 이용하여 교회에 들어 오실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욱 힘을 내어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찬양예배시간에는 10명의 장로 임직과 6명의 안수집사 추가임직식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이들의 힘찬 사역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424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혜정,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옥(인도), 서광종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제32권 제17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2년 4월 24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서 울 교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

■ **겔 47:6-12**

부활절 후 오순절까지의 50일을 교회력에서는 ‘기쁨의 50일’로 부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힘든 세월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메마르고 황폐하여 생명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마음들은 점점 더 거칠고 각박하여 불행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갑니다. 이런 인간 세상의 현상을 획기적으로 뒤집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은 기쁨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풍성한 회복이 있음을 에스겔의 예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 에스겔의 희망

에스겔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1:1)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혹독한 포로생활 중이었고 백성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고통당할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담대하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겔 43:4,5) 이 모습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고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니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모든 죽음의 땅을 풍요가 넘치는 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회복의 역사가 다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삶의 수치가 물러가고 영광의 시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롬 11:36)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일 뿐입니다.

2.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성전 모퉁이에서 시작된 강물은 아라바 광야를 적시고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흐르는 모든 곳이 생명을 되찾는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광야도 살아나고 죽음의 바다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이 환상은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회생의 은혜를 입을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요7:39에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했습니다. 2)계22:1에는 생명강이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3)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병든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그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풍성해지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3. 새로운 비전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결이 광야를 적시고 사해를 변화시키는 신비한 광경을 목도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의 새로운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 시대보다 더 넓고 광활한 지역을 약속해 주시면서 비전으로 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나라요 몰락해버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있는 꿈을 향해 늘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시 37:23,24)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기신 비전을 향해 도전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은혜와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린양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Ⅰ	오전 9시	안용곤 목사	이계홍 장로
Ⅱ	오전11시	조원영 목사	양춘경 장로
Ⅲ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150: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34(부활절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288(20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겔 47:6-1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436(49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15대 장로 임직 및 15대 집사 추가 임직 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손달익 목사, 설교: 이순창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예배로 부름 ····· 요 11:40 ····· 인 도 자
찬 송 ····· 159(149) ····· 다 함 께
기 도 ····· 임상헌 장로
성 경 ····· 엡 4:11-16 ····· 인 도 자
봉 헌 ···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 ··· 다 함 께
* 봉헌송 ·····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거룩한 성소 거룩한 직분자들" ··· 설 교 자
기 도 ····· 설 교 자
* 찬 송 ····· 595(372) ····· 다 함 께
* 주기도 ····· 다 함 께

-2부 : 15대 집사 추가 임직식-

집례: 손달익 목사
· 임직자 소개: 임상헌 장로 · 서약: 손달익 목사

-3부 : 15대 장로 임직식-

집례: 손달익 목사 · 축도: 이종윤 목사
· 임직자 소개: 임상헌 장로 · 서약: 손달익 목사
· 권면: 차주욱 장로 · 축사: 신정호 목사

수요예배

Ⅰ부 오전 11시 · 인도: 김익환 목사
Ⅱ부 오후 7시 ·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Ⅰ부: 한명자 권사 Ⅱ부: 정진영2 권사
성 경 ····· 행 20:28-38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양떼를 위하여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강 좌우 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겔 47:12)		
수요Ⅰ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성구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스데반 임원회** / 24일(주일) 오후 12시30분 609호
2. **8교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모임** / 24일(주일) 오후 12시30분 802호
3. **권사 월례회** / 24일(주일) 3부 예배 후 801호
4. **뵈뵈 전도회 월례회** / 25일(월) 오후 9시 ZOOM 비대면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이번주 심방 일정**
    2-6, 2-7, 3-1, 3-2, 7-1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666명	576명	2,242명	390명	2,043명

일꾼

무대에서 전개되는 대로 관망만 하는 구경꾼도 있고 종일 지껄여도 밑천이 들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떠벌이는 마꾼도 있다. 화가 날 때마다 닥치는 대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싸움꾼도 있고 지나친 간섭과 비방만 일삼는 훼방꾼도 있다. 그러나 일꾼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책임감을 갖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일꾼은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일의 목적과 방법을 하나님과 함께 하되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한다.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해서도 아니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사람의 소욕을 좇아 행하는 것도 잘못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일을 한다. 썩고 혼탁한 마음은 예수의 피로 씻기움을 받고 진실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을 한다. 이해타산과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고 의기와 도전과 감격과 분발로 이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끕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